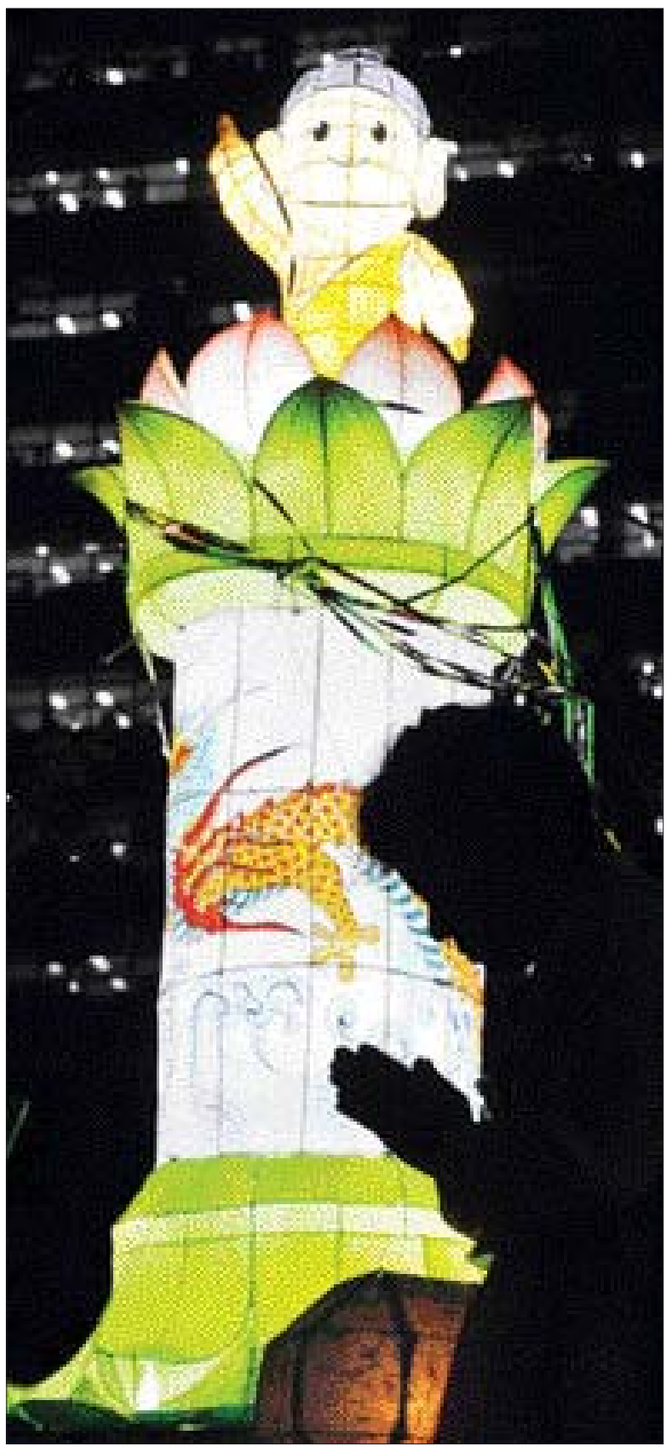


"온누리에 자비를" 불기 2554년 부처님 오신 날(21일)을 앞두고 3일 광주시청사 앞 광장에 설치된 '부처님 오신 날 봉축탑'이 점등됐다. 진리와 인간 삶의 고귀한 의미를 알리고 부처님의 숭고한 뜻을 기리기 위한 봉축탑은 부처님 오신 날까지 불을 밝힐 예정이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대·조선대 총장 직선제 손질

내부 분열·반목 후유증…1차 2~3명 압축해 2차 직선으로

전남대 내년 개선안 마련·조선대는 7일 이사회서 심의

전남대와 조선대가 총장 직선제 손질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조선대가 지난 1988년, 1992년부터 각각 채택한 총장 직선제는 대학 자치 확대라는 취지에 충실하지 못하고 내부 분열 및 반목으로 대학 내부와 지역 사회 갈등을 불러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양 대학은 지난해부터 총장 선출제 개선을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구성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들 대학의 설문조사 결과, 대학 구성원들은 대부분 직선제 폐해에 공감하면서도 대학 운영의 독립성을 위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데 60% 이상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양 대학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1차에서 후보자를 2~3명선으로 압축하는 안을 마련했다.

전남대는 다음 총장 선거가 오는 2012년 4~5월 예상돼 있어 최종 개선안 도출은 빨라야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조선대는 총장 선거가 2011년 9월이어서 늦어도 올해 안에 개선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조선대는 오는 7일 열릴 이사회에서 새로운 총장 선출방안을 심의할 계획이어서, 직선제 개선안이 전격적으로 통과되거나 적어도 올해는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대는 2년전부터 대학자치운영협의회(이하 대자협) 주도로 새로운 총장 선출안을 검토해 최근 개선안을 도출했다.

대자협 방안에 따르면 조선대 총장은 1차에서 입후보자들을 상대로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 심사결과(30%)와 '간접선거인단'의 선거결과(70%)를 각각 반영해 예비후보자를 2~3명으로 압축한 뒤, 이들을 대상으로 직접선거를 치른다. 총장후보추천위는 학내 구성원과 지역 인사 등 29명으로 꾸려지며, 간접선거인단은 120명의 구성원을 무작위로 선정해 구성된다.

전남대는 '총장선거제도개선특별위원회' 주관으로, 대학 구성원들의 갈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우선 학내외 인사 15명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초빙위원회'를 구성, 입후보자를 2~3명으로 줄인 뒤 직접선거를 치르는 방식을 잠정안으로 도출한 상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공부 못하는 학생선수 전국대회 못뛴다

교과부 학습권 보장제 도입

국어, 영어, 수학 등 주요 과목의 기말고사 성적이 전교생 평균과 비교해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 수준에 미달하는 학생 운동선수는 시도 및 전국 단위 경기대회의 출전이 제한된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 시스템 구축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초4년부터 고3년까지 9개 학년의 선수 중 초·중생은 국·영·수·사·과 5과목, 고교생은 국·영·수 3과목의 1·2학기말고사 성적이 최저학력 기준에 미달하면 각종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학습권 보장제가 도입된다.

최저학력 기준은 초등생 50%, 중학생 40%, 고교생 30%로, 예컨대 전교생 평균성적이 70점이라면 초등생 학생선수는 35점, 중학생은 28점, 고교생은 21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와 국내 경기단체가 주최하는 권위 있는 국제대회는 참가할 수 있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할 수는 있다. /연합뉴스

'검사 스폰서' 의혹 평검사들 소환조사

'검사 스폰서' 의혹에 거명된 현직 검사들이 3일 처음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이번 의혹의 진위를 밝힐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 서울대 법대 교수)는 산하 진상조사단이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접대했다고 주장하는 현직 검사들을 이날 오후에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이날 검사들을 직접 대면하거나 전화 등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전조사와 함께 접대 장소로 지목된 룸살롱 등 업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동시에 진행했다. 검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는 서울고검 사무실 등에서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일부 조사는 유선을 통해 이뤄졌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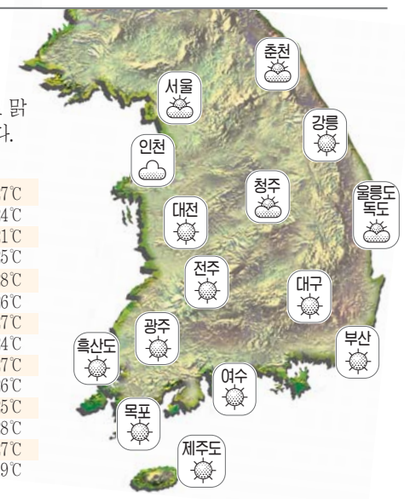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39분 / 해짐 19시 20분 — 달뜸 00시 00분 / 달짐 10시 07분

반팔 셔츠 어때요?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고 한낮에는 다소 덥겠다.

광 주	맑음	17/27℃
목 포	맑음	15/24℃
여 수	맑음	15/21℃
완 도	맑음	14/25℃
구 례	맑음	14/28℃
해 남	맑음	14/26℃
장 흥	맑음	13/27℃
고 흥	맑음	14/24℃
순 천	맑음	14/27℃
영 광	맑음	15/26℃
진 도	맑음	14/25℃
전 주	맑음	16/28℃
남 원	맑음	11/27℃
흑산도	맑음	13/19℃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1.0~1.5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5m
먼바다	남~남서	1.0~2.0m
남해 서부 앞바다	남~남서	0.5~1.0m
먼바다	남~남서	0.5~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주의	낮음

	밀물	썰물
목포	05:57 / 17:40	11:22 / 23:02
여수	00:31 / 12:20	06:44 / 18:27

◇주간날씨 —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5(수)	6(목)	7(금)	8(토)	9(일)	10(월)
날 씨						
최저/최고	17/24	15/20	10/23	8/22	10/22	10/22

어린이날 나들이 좋은 날씨

광주·전남 맑고 따뜻 … 밤부터 비

'어린이날'인 5일 광주·전남은 대체로 맑아 나들이와 야외활동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5일 낮에는 비교적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 늦게부터 차츰 흐려져 비가 시작되겠다"고 3일예보했다. 5일 아침 최저기온은 17도, 낮 최고기온은 24도로 평년보다 3~5도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 5일 밤부터 시작된 비는 6일까지 이어지겠으며,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평년 수준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4일 아침 최저기온은 13~17도, 낮 최고기온은 21~28도로 한낮에는 다소 무덥겠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